

# 대학가도 워드 코로나... 서울대 등 '대면 수업' 기지개

대면·비대면 병행 혼합 수업  
서울대, 학생 단기 숙소 마련  
교육부, 대면 수업 확대 요청

정부가 내달 코로나19와의 공존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워드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둔 가운데, 주요 일부 대학도 대면 수업에 들어간다. 서울대와 송실대, 국민대 등이 이달부터 10~30명 이하 이론 강좌를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늘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 수업을 허용한다.

## ◆서울대, 18일부터 이론수업도 '대면' 확대...송실대, PCR검사 후 수업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18일부터 이론 수업으로까지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왔던 대면 수업을 이달 18일부터 수업 여건에 따라 모든 단과대의 이론 강의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대면수업을 위해 학교 인근 거처를 구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보증금이 없는 단기 숙소를 마련했다. 학내에서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 100여명, 시흥캠퍼스 교육연수원 등에 150여명을 추가 수용한



송실대 한 강의실에서 지난 6일 오전 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실대

다. 거주 기간은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학교 밖에서는 관악구대학동과 협의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없이 2개월 단기 임차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했다.

앞서 송실대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 및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 입구에서 모든 출입자의 PCR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PCR 검사 미진행으로 출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자가진단키트도 비치해뒀다.

송실대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

저질환, 능동적 자가 격리 등 대면수업 참가가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강의실에 웹캠을 설치해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수강생이나 수업 담당 교원이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될 경우 실시간 화상 수업과 사전녹화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수강생은 유고결석이 인정되며 교원은 휴강 후 보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입국한 유학생들에게도 실시간 화상 수업, 녹화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대·숙대도 '조건부' 대면...교육부 '대면 수업 확대' 요청

국민대는 개강 6~8주차인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공 실험·실습·실기수업에 한해 교내 코로나19비상대위 승인을 거쳐 최대 9명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국민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해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다만 실험 및 실습 등에 대면 수업을 허용하면서 수업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강사·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대면 수업에서도 온라인수업을 동시에 제공하고,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해 해외·지방 거주자나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의 상황을 고려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실험·실습·실기수업의 학습결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대면수업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가 포함되거나 30인 이하 소규모 강좌인 경우 대면 수업을 승인했다. 실제 대면 수업 재개 시점은 교강사의 결정이나 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따라 다르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과목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의실 면적 6㎡당 1명 수용을 기준으로,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해 책상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수업 전·후 또는 공강 시간 교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당국은 "대면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학에 대면 수업 확대를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2차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대학생이 학습이나 심리·정서적 결손, 중도 탈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 확대를 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며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가 예상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여건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철저한 학내 방역 관리 아래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면 수업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연구자 위해 써달라” 아주대 동문 5억 기부 김영근 교수 연구팀, 루테튬 나노선 제작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동문  
전임 교원에 최대 5000만원 상금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정보보안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을 일궈온 기업가가 탁월한 연구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교 아주대에 5억원을 쾌척했다.

12일 아주대학교는 정보보안 분야 중견기업 마크애니의 최종욱 대표가 모교 연구 발전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앞으로 이 기금을 기반으로 저명 학술지 '네이처' 또는 '사이언스'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아주대 소속 전임 교원에게 최대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의 도전 정신을 기리고



최종욱 기부자(왼쪽)와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시 중구 마크애니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대

자 하는 기부자의 뜻을 담아 이상은 '김우중아주학술상'으로 명명했다.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는 아주대 공업경영학과(현 산업공학과)에 1978년 입학했고,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1988년 경영정보시

스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실장을 거쳐 1991년부터 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로 강단에 섰다.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대학 벤처로 사업을 시작, 1999년 마크애니를 설립했다.

마크애니는 문서보안 및 위변조방지 솔루션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CCTV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안과 블록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마크애니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대 규모의 특허를 보유,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성과를 내왔다. 2020년 마크애니의 매출액은 232억원, 영업이익은 56억원이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차세대 배선 소재·공정 개발 단초 기대

고려대 연구진이 루테튬계 나노선의 비저항과 저유전체로의 확산평가를 통해 저저항 대체 소재를 탐색하는데 성공했다. 향후 차세대 배선 소재 및 공정 개발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고려대학교에 따르면 김영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금속배선로 주목받고 있는 루테튬(Ru)을 나노크기로 제작하고, 지름별로 비저항과 물질 확산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반도체 칩의 계속된 집적화로 인해 배선의 선폴이 수 나노미터(nm)까지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배선의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연구팀은 다공성 나노 멤브레인과 전기도금법을 이용해 루테튬(Ru, 원자번호 44)계 나노선을 제작했다. 루테튬은 비저항 크기 효과가 작고 원자간 응집력도 높아 전기 이동과 배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유전체 막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낮아 차세대 배선 소재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수용액에서 전기도금 시 경쟁반응인 수소 발생 반응으로 인해 금속 루테튬으로 환원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연구팀은 도금액에 수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완충제와 첨가제를 사용해 다양한 지름을 갖는 루테튬계 나노선을 제작했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1000만원 기탁

써모아이(주), 청년창업 발전기금 기부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소속 청년창업 기업 써모아이(주)가 중앙대학교에 청년창업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써모아이는 지난 2019년 중앙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김도희 대표가 열화상 카메라 및 인공지능 영상처리 솔루션을 개발해 설립한 청년 창업 기업이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은 써모아이가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중앙대 캠퍼스타운 소속 청년 창업 기업 써모아이(주)의 김도희 대표(왼쪽)가 이산호 중앙대 행정부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써모아이

정을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대학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은 대학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안과 실현을 위해 '제2회 크리에이티브 세종 IDEA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대학 발전과 관련한 5가지로 ▲학령인구 감소 대책 ▲메타버스 ▲SDGs(지속 가능 개발 목표) ▲ESG(환경·사회적문제·지배구조) ▲인공지능(AI) 분야이다. 참가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 이영희 교수, 양성평등진흥 '대통령 표창'

(인하대)

양성평등 인식 제고 기여

인하대학교는 이영희 간호학과 교수(사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1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영희 교수는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과 인천클럽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로 임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교수는 국내외 유관 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퀄페이데이 캠페인, 여고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사업, 성평등 세미



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인식 향상에 앞장서 왔다.

특히 BPW 한국연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한국 최초로 BPW 세계연맹이 수여하는 'BPW 어워드'를 수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난 9월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인천 지역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